개점 21주년 광주신세계

지역과 상생 앞장…50년 향해 다시 뛴다

전통시장 아낌없는 지원 2200명에 22억 장학금 특급호텔 하반기 본격화

지난 1995년 현지 법인으로 출발한 이 래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온 ㈜광주신세계 (대 표이사 임훈)가 개점 21주년(25일)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 고 있다.



임훈 대표

임훈 대표이사는 23일 "지역 대표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지난 21년의 시간은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무한한 신뢰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호남 최고의랜드마크 비전 달성을 위한 제 2의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광주 현지기업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하는따뜻한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최신 MD(브랜드/상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백화점 업태의 특성을 살려왔고, 마트와 패션스트리트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복합형 쇼핑타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개점 초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백 화점'을 최우선 목표로 상생의 가치를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 지역 대표 예술 축제인 광주비엔날 레후원 등 문화예술체육지원, 희망나눔 테마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등의 지역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화정동 서부시장 및 10월 양동전통시장과 체결한 전통시장 활성 화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 약은 대형 유통기업이 골목상권과의 자



서구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전경.

율적 협의를 통해 동반성장의 해답을 찾아가는 상호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또 지난달 7월 광주신세계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의 서비 스 품질 향상과 전통시장의 영업 환경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 기법을 개발하는 마케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하고, 서구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 장을 지원해줬다.

이 밖에도 2015년 11월에는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타지역 선진시장벤치마킹 투어에 함께 나섰으며 지난 5월 양동시장 상인화합 한마당에 경품을지원한 것과 더불어 양동복개상가 문화행사를 지원해줬다.

현지 바이어제도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농수축산물의 발굴하고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지역 상생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다. 기존의유통단계를 2~3단계가량 줄여 '농가→지역 협력사→백화점' 내지는 '농가→백화점'의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지난 21년간 지속한 광주신세계 장학 사업은 소년, 소녀 가장 및 차상위 층 계층 자녀, 사회봉사 활동 우수자 등 지역 인재 2200여명에게 총 22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이 밖에도 '희망장난감 도서관'도 지 원하고 있고, 광주시청사 희망장난감 도 서관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청사 내에 설치하여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나눔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행복 나눔 바자회'를 열고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 난치 아동들을 돕기 위한 '1004인의 기 적'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광주신세계는 최근, 광주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의 성 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최대 원룸 밀 집 지대인 상무 1동에 안심부스(세이프 존) 설치와 벽화거리도 조성했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첫 회부터 올 해까지 총 16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 며, '디자인비엔날레''에도 정기적 후원 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광 주신세계 미술제'는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신예 작가들을 배출하는 창구 역 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특급호텔 등을 아우르는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시 설을 개발하는 투자협약을 광주시와 체 결했다.

광주신세계는 해외 유명 건축설계사들을 상대로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해 독일 GMP 사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기도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계약이 진행중이며, 쇼핑공간 축소 등에 따른 후속작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통해 광주가 고품격 문화관광 중심도시 로 탈바꿈하는데 일조하고 숙박, 문화, 쇼핑 등을 아우르는 호남 최고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적인 증축 및 이전 관련 기본 계획과 설 계준비에 돌입했으며 새로운 랜드마크 에 광주만의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통 모델을 개발해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9.93 (+7.77)

금리 (국고채 3년) 1.23% (0.00)

▶ 코스닥 687.38 (-0.77)

➡ 환율 (USD) 1115.60원 (-10.90)

추석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못탄다

도로 위의 비지니스클래스…현대차 파업에 생산 차질

추석 연휴로 예정됐던 프리미엄 고속버 스 운행이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노조 파 업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정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예매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다. 노조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생산 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부와 현대차 측이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던 차량 예매 일정도 함께 연기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당초 현 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한 프리미엄 고속버 스 총 27대를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아차가 전기 과부하 등 기술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면서 현대차에서만 차량 16대를 9월 6일까지 인수하기로 계획

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전날 오후 노조의 파업 악화로 생산 차질이 빚어져 기한 내 차량을 생산·납품하기가 어렵다고 고속 버스조합에 통보했다.

고속버스조합은 국토부와 협의해 파업 악화에 따라 추후 생산 일정이 불확실한 점, 파업 기간 중 생산 차량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개통 시기를 연 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매가 끝난 이후 차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큰 불편이 야기된다고 판단했다" 며 "10월 중순께 차량 27대로 운행하도록다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은 운행 취소 사실을 고속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예매사이트 (코버스·이지티켓), 터미널 내 창구에 게 시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200대 추석 시승 이벤트

현대·기아차는 추석 연휴에 귀성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한가위 시승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는 홈페이지(www.hyundai. com)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 2017년형 쏘나타 차량 100대를 무상(유류비 제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응모는 9월 4일까지이며, 당첨자는 같 은 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기아차도 총 100명에게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간 시승 차량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차량은 ▲ K5(60대) ▲ 니로 (10대) ▲ 스포티지(10대) ▲ 쏘렌토(10대) ▲ 카니발(10대) 등 총 100대다. 9월 4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http://www.kia.com/)에희망 차종과 사연을 적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여부는 9월 6일 기아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여행이벤트는 9월 2일까지홈페이지 (http://www.greentrip.kr/)를통해 신청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전국 12개 대학 확대

벤츠 기술 노하우 학과에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이하 모바일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한국폴리텍 5대학 광주캠퍼스 등 전국 12개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번 체결식은 2014년부터 참여한 10개 대학과 이번에 추가 선정된 2개 대학을 포함 한 12개 대학 및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다.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모바 일 아카데미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모바일 아카데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우수한 기술력 및 글로벌 교육 노하우를 국내 자동차관련 대학 학과에 직접 제공하는 산학 협력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및 공식 딜러 네트워크와 연계된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지금까지 졸업생 238명을 배출했고 이중 지원자 전원이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네트워크 및다임러 트럭 딜러 네트워크에 채용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진공 '간접광고 지원' 광주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 장 황창범)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중 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참여기 업 6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은 소비 재 생산·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 상파(KBS·MBC·SBS)를 비롯한 케 이블 채널 드라마에서 제품의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일정에 따라 드 라마별 간접광고(PPL) 희망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 참여기업에는 ▲간접광고 비용 보조(최대 50%) ▲간접광고 콘텐츠 활용 마케팅 교육 ▲온라인 B2C 판매대 행사업 등 중진공의 다양한 마케팅지원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제작사,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2차 심사로 진행된다. 참여기 유망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간접광고(PPL) 적합 드라마 및 노출 방식을 결정한다.

업의 제품노출 희망의견과 상품성, 수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 흥공단 홈페이지(home.sbc.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 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로 제 출(ppl@sbc.or.kr)하면 된다. 문의 055-751-9755. /김대성기자bigkim@



